

## 사회복지연구를 위한 페미니스트 인식론의 비평과 함의

성 정 숙\*

(중앙대학교)

이 나 영\*\*

(중앙대학교)

### [요 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 연구의 주요 경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페미니스트 인식론과 사회복지 연구의 절합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사회복지학』에 게재된 양적·질적 연구의 주요 경향과 여성에 관한 연구를 분석하고, 방법론 및 인식론적 쟁점을 논의하면서 페미니스트 인식론의 내용과 사회복지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페미니스트 인식론으로부터 출발하는 연구는 실증주의적 전통에서 출발하는 객관성의 개념을 재고하고, 지식구축 과정에 작용하는 권력관계와 주체-타자와의 관계를 성찰하게 하여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와의 민주적이고 변증법적인 관계를 새롭게 정립시킨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연구에 대안적 전망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페미니스트 인식론과의 조우가 억압받는 사람들의 삶으로부터 사고를 시작하는 사회복지(학)의 비판적 이론과 실천적 전망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 기대한다.

주제어 : 사회복지 지식생산양식, 페미니스트 인식론, 비판 연구, 방법론, 실증주의, 질적 연구

\* 주저자

\*\* 교신저자

## 1. 서론

### 1) 문제제기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연구의 주요 경향을 인식론과 방법론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사회복지 지식생산 양식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페미니스트 인식론과 사회복지 연구의 절합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사회복지학』에 게재된 양적·질적 연구의 주요 경향과 여성에 관한 연구를 분석하고, 페미니스트 인식론의 내용을 구체적인 쟁점별로 정리하면서 ‘한국사회복지(학)’에 제시하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 지식생산 방식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질적 연구의 증가 추세일 것이다. 실증주의를 토대로 하는 경험적이고 계량적인 양적 연구가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2000년대 이후 질적 연구의 성장은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주요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뿐만 아니라 학위논문 중 질적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가 추세이다). 질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저서(최종혁, 2002; 이효선, 2004; 홍현미라 외 4인, 2008)와 번역서들이(유태균, 2001; 유태균·이선혜·서진환, 2004; 이효선, 2005; 조홍식 외 3인, 2005) 2000년대 이후 집중적으로 출간되었다는 점 또한 그러한 경향을 반영한다. 질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지적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사회복지(학)’이라는 학문공동체의 연구 전통에 대한 비평과 성찰이 확산되는 과정 속에 마침내 2006년에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가 창립되었다.

그러나 불과 수년만의 괄목할만한 성장의 이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일부 사회복지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의 양이 크게 증가했지만, 그 수준은 일종의 지체현상처럼 저하되어 있고 엄밀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한편, 현재의 질적 연구가 단순히 질적인 성격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적 방법의 차원으로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홍경준, 2002; 김미옥, 2007; 김인숙, 2007). 그러한 비판은 현재의 질적 연구의 팽창이 내용을 담보하면서 ‘사회복지학’의 지평을 확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질적 연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방법론과 인식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지식생산 양식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다(최균, 1995; 문성호, 1997; 김연옥, 1998; 홍경준, 1998; 2002; 강철희·김미옥, 2003; 김미옥, 2007; 김인숙, 2007). 이러한 현실에서 질적 연구에 관한 김인숙(2007)의 주장은 의미심장하다. 그는 질적 연구의 태동이

1) 김인숙(2007)에 의하면, 『한국사회복지학』 게재 논문 중 2000년도에는 한편도 없던 질적 논문이 2001년 1편, 2002년과 2003년에 각 4편, 그리고 2004년 이후 매년 5편씩 게재되고 있으며, 2003년 이후의 질적 논문을 전체 논문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평균 10.6%까지 상승하였다고 한다. 학위논문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엿볼 수 있는데, 1995~1999년에 제출된 전체 학위논문 중 질적 연구 논문은 3.7%에 불과하였으나, 2000~2006년에는 약 15.3%, 2003년 이후에는 약 21.8%로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회복지학계의 지배적 인식론인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적 토대를 구축하는 출발점으로서 의미를 가지지만, 실제로 대안적인 인식론적 전망을 뚜렷하게 제시하거나 이와 관련된 논쟁적인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그는 사회복지 질적 연구 진영의 후속과제로 “대항적인 인식론”의 모색을 강조한 바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확대하여 본 연구는 ‘한국사회복지’ 지식생산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페미니스트 인식론(feminist epistemology)을 대항적 인식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들이 인식론에 주목하는 이유는 결국 연구자의 인식론적 위치(position)가 전체 연구 과정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방법론(methodology)이 어떻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이론이자 분석이라면, 인식론(epistemology)은 ‘지식에 관한 이론’이다(Harding, 1987: 2-3).<sup>2)</sup> 둘은 연결되지만 변별점을 지니는데, 질문에 대한 적절한 방법을 찾기 위해 각 분과학문에서 통용되는 이론의 일반적인 구조를 적용하는 방식이 방법론이라면, 인식론은 ‘누가’ ‘어떻게’ ‘무엇’을 알 수 있는지에 관한 지식의 정당화 방식에 대한 질문으로, 궁극적으로 지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누가 어떤 연구방법(method)을 선택하고 어떻게 이론적 구조를 적용할 것인지 선택하는 문제는 결국 인식론적인 이슈에 수렴되며 이는 분과학문 내 지배적인 연구 경향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오랫동안 사회과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증주의적 인식론은 방법(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다(Hesse-Biber, Leavy, and Yaiser, 2004: 5-6).

인식론 중에서도 본 연구가 페미니스트 인식론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페미니스트 인식론이 남성 중심적이며 실증주의에 기반한 연구에 대한 비평과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페미니즘과 사회복지학의 상호연관성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페미니스트 인식론은 남성중심적 지식체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동안 배제되어 온 여성을 삶의 주체이자 지식생산의 주체로 정당화하는 지식에 관한 대안적 이론으로 발전해왔다. 또한 페미니스트 인식론은 단순히 생물학적 여성의 입장과 위치를 넘어 사회적 약자와 타자(others)의 입장에서 헤게모니적 지식-권력 체계에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위치에서 지식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스트 인식론에서 출발하는 연구는 “클라이언트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는” 사회복지실천의 원칙(Swignonski, 1993: 171)과 만나며, 불평등하며 부정의한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고 연대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실천과 정책)의 가치 및 목표와도 접점을 이룬다. 따라서 이론과 실천, 연구의 통합을 지향하는 ‘페미니즘’과, 역시 이론과 실천과 연구가 하나로 통합되는 ‘사회복지(학)’과의 조우는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며 대안적인 실천과 지식생산 양식을 구축 가능하게 한다.

## 2)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본 논문의 목적은 현재 사회복지연구에서 그동안 지배적인 양식인 양적 연구와 새롭게 확산되는 질적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여성’에 관한 사회복지 연구의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2) 한편, 데이터 수집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분석의 기술을 방법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페미니스트 인식론이 사회복지연구에 제시하는 중요한 방향성과 함의들을 고찰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 연구의 주요 경향과 방법론적인 문제, 인식론적 쟁점은 무엇인가? 둘째, 사회복지 지식생산양식의 대안적 전망에서 페미니스트 인식론이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

이상과 같은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내용분석 및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우선, 2000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총 22권의 『한국사회복지학』에 게재된 논문 총 487편을 대상으로 연구설계를 중심으로 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사회복지학회>의 인터넷 논문검색을 사용하여 2009년 6월까지 『한국사회복지학』 게재 논문 중 “여성, 아내, 배우자, 어머니(모), 한부모(편모), 가족수발자”라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 나온 124편을 중심으로 연구주제 및 연구대상인 ‘여성’들을 재현하는 방식에 관하여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헌 연구를 통해 페미니스트 인식론에서 출발하는 연구가 사회복지 지식생산의 성격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 2. 페미니스트 인식론이란?

학문으로서 페미니즘은 “지식 생산과 분배의 위계적 방식에 대한 도전”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Hesse-Biber, et al., 2004: 3). 이는 단 하나의 ‘보편적(대문자) 진리(universal Truth)’를 주장하는 전통적 지식 구축 과정에 비판적 거리를 두면서,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주류 사회에서 숨겨진 세상의 다른 측면들을 발견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작업이다. 또한 실증주의 인식론적 기반에 근거한 기존의 사회과학 연구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연구 내용과 과정 및 배경에 내재한 권력관계에 대한 도전과 재구성의 과정이기도 하다.

Harding(1991: 106)은 타자로서 종속되었던 여성들의 존재와 경험을 재고하기 위해 발전된 ‘대항적인 인식론’으로서 페미니스트 인식론을 페미니스트 경험론과 페미니스트 입장론, 그리고 페미니스트 포스트모더니즘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페미니스트 경험론은 실증주의적 인식론에 전제된 성차별주의를 제거함으로써 ‘나쁜 과학(bad science)’을 수정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페미니스트 입장론은 여성의 경험과 관점에서 지식을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한편, 페미니스트 포스트모더니즘은 경험론과 입장론에 내재한 본질론과 총체성을 비판하면서 국지적(local)이고 부분적인(partial) 지식을 제안한다. 세 모델은 역사적 단계에 따라 발전해 온 것이지만 여전히 경합적이며 맥락적 유용함을 지닌다. 특히 백인중심주의로 비판받아 온 입장론은 ‘차이들’에 관한 페미니스트들의 이론화를 통해 확장되었으며, 사회변화를 위한 실천에 무기력하다고 비판받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 인식론은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을 통해 보완되어 왔다.

### 1) 페미니스트 경험주의(Feminist Empiricism)

페미니스트 경험주의는 실재와 객관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실증주의적 인식론의 전제를 공유하면

서 (사회)과학 안의 성차별주의를 제거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복무한다. 젠더 편견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객관적인 사회적 실재를 포착하고 설명하는 것이 과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Campbell and Wasco, 2000: 781). 페미니스트 경험주의자들은 근대 과학의 성차별성이나 남성중심성을 사회적 편견이나 왜곡이 개입된 “나쁜 과학”의 결과라고 보았다(Harding, 1991). 연구에서 발견되는 편견과 선입견은 과학의 원칙과 법칙, 기준들이 충분히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과학적 연구에 대한 현재의 방법론적 규범, 실증주의적 요소들을 보다 엄격하게 지키고 관찰자가 중립적인 절차를 엄수하면서 연구표본에 여성들과 다른 소수자들을 보다 많이 포함시킨다면, 성차별적이고 남성중심적인 편견은 제거될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을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Hesse-Biber, et al., 2004: 9). 이들은 여성의 활동과 경험을 포함하는 새로운 실증주의적 연구 기술이 더욱 중립적이며 포괄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증진시킬 것으로 믿는다(Brooks and Hesse-Biber, 2006: 11).

Harding(1991: 113)은 페미니스트 연구의 결과물들을 전통적인 지식 체계 안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페미니스트 경험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기존 학계에서 타당한 연구결과로 인정되기만 한다면 전통적인 신념의 네트워크에 일으키게 될 균열은 아주 크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도전이 과학 규범 자체가 아니라, 방법의 실행 상 불완전함에 한정되어 왔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 받는다. 이는 주변부이긴 하지만 여전히 지배적인 학문 체계 ‘내’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위치성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페미니스트 경험주의는 현재 과학적 연구가 사용하는 인식론적 토대에 대한 문제제기나 이동없이 단순히 여성을 “부가하는 것(to add)”이며, 결과적으로 주류 연구들을 복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받는다(Hesse-Biber, et al., 2004: 11). 지배적인 과학철학과 본질적인 논리에 대한 최소한의 도전에 그친 한계점이 다른 페미니스트들의 비평보다는 사회적으로 수용 될 가능성이 높은 이점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 2) 페미니스트 입장론(Feminist Standpoint Epistemology)

페미니스트 입장론자들은 실증주의의 근본 원리를 거부하면서 출발한다(Sprague and Kobrynowicz, 2004). 이들은 사회적 실재는 구성되는 것으로 단일한 객관적인 진실은 없다는 구조주의자들의 전제를 공유면서, 인식하는 자는 대상에 대해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Campbell and Wasco, 2000: 781, Sprague and Kobrynowicz, 2004: 80). 입장론자들은 위계적 사회관계가 다른 입장들과 시점들을 생산하며 이로부터 다른 사회적 삶이 경험된다고 주장한다(Hesse-Biber, et al., 2004: 15). 따라서 페미니스트 입장론은 주변화된(marginalized) 사람들의 삶의 경험과 관계된 질문에서 연구를 시작하고 사상을 출발시키는 것(starting off thought)이다.

억압받는 이들의 물적 삶이 위치하는 사회적 지점으로부터 사고를 시작하면 지배집단의 삶들에서 시작하는 사상들에서는 결코 제기될 수 없는 비판적인 질문들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Harding, 2004: 128). 다시 말해, 사상의 출발점이자 지식이 정당화되는 인식의 물적 토대는 바로 억압된 사람들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과 경험이며, 이를 통해 구성되는 ‘입장(standpoint)’이다. 이러한 입장은

여성이기 때문에 혹은 억압받는 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들로 구성된 사회구조 안에서 삶에 대한 투쟁을 통해 비로소 획득된다.

Hartsock(2003)은 마르크스의 역사적 유물론으로부터 물질적 토대에 근거한 여성의 '입장'을 도출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와 사회구조적인 억압을 보다 구체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인식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권력자의 시선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의롭지 못한 조건들을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왜곡되지만, 자본주의 사회와 가부장제도에 의해 지배집단의 억압을 받아왔던 피억압자인 여성의 '입장'은 여성들의 삶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삶과 전체적인 사회적 질서에 대해서도 왜곡되고 덜 부분적인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Harding, 2004: 128). 마르크스 이론에서의 노동자처럼, 여성의 물질적 조건으로서의 삶은 남성의 지배권에 도전하는 탁월한 지점이 되면서 왜곡되었던 관계들을 비인간적인 것으로 폭로하는 해방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Hartsock, 2003: 36-37). 삶의 주변부에서 타자이자 이방인으로 존재하며 투쟁해 온 사람들의 통찰력은 지배적인 사회구조의 문제를 보다 잘 보게 하고, 기존의 구조와 질서의 유지가 아닌 변화와 변혁을 지향하도록 이끈다(Collins, 2004: 121). 사상의 출발점을 억압받고 주변화된 사람들의 삶에 두는 것은 전통적인 실증주의적 과학적 연구에서 재생산되고 정당화되었던 사회적 질서와 권력의 관계를 뒤집는 혁신적인 시도인 것이다.

그러나 초창기 입장론자들은 젠더를 넘어서는 차이들에 관해 민감하지 못했으며 보편적이고 단일한 여성의 경험을 상징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았다. 따라서 이후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다양한 경험을 탈본질화시키면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다른 범주들과 교차하는 속성으로서 젠더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입장론을 확장시켰다(Hesse-Biber, et al., 2004: 16). 특히 Collins(2003)은 '입장'을 정의하는데 작용하는 사회적 권력을 단순히 남/녀로 이분화하지 않고 인종과 계급, 젠더 등이 서로 교차하면서 맞물리는 "지배 매트릭스(matrix of domination)"로 개념화함으로써, '입장'의 개념을 사회적 권력의 매트릭스에서 잠정적으로 위치하는 "위치성(positionality)"으로 확장하였다. 이로써 '입장'은 억압자/피억압자라는 이분법이 아니라 '복합적 관계의 교차'에 근거한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페미니스트 아젠다 또한 평등의 문제에서 차이들(differences)의 이슈로 변화했다. 차이에 대한 설명이 성별이나 젠더 체계로 단일화되지 않고 인종, 민족성, 계급과 섹슈얼리티 등 복합적인 맥락으로 확산되고 억압의 축들의 '상호교차'와 '상호결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여성의 삶과 억압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이나영, 2009: 544-545).

### 3) 페미니스트 포스트모더니즘(Feminist Postmodernisms)과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 인식론(Postcolonial Feminist Epistemology)의 만남

198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등장한 비판 이론과 후기구조주의, 포스트모던, 탈식민주의 이론들 간의 접점은 새로운 형태의 페미니즘을 형성하는데 의미심장한 역할을 했다. 페미니스트 포스트모더니즘은 발견되어야 할 단일한 진실과 객관적 실체가 존재한다는 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들과 가치들을 거부하며, 거대 담론과 텍스트를 (재)생산하면서 권력과 억압의 현상유지를 위해 복무하는 과학의 기능

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Campbell and Wasco, 2000: 782). 따라서 페미니스트 연구의 스펙트럼에서 페미니스트 경험론이 한쪽 끝이라면, 다른 한쪽 끝에 페미니스트 포스트모더니즘이 위치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들은 젠더가 어떻게 상징화되고 (재)생산되는지를 분석하는데 페미니스트 경험론과 입장론 모두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페미니스트 경험론은 기존의 모델에 여성을 첨가하거나 고정시켜 하나의 독립변수로 간주하는 한계를 가지며, 페미니스트 입장론 역시 '여성 관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통된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와 같은 고유한 특성을 전제함으로써 페미니스트들이 그토록 경계하던 생물학적 본질주의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비판한다(Leavy, 2006: 84).

사실 이성주의, 보편주의에 기반한 '주체(Subject)' 개념에 대한 비판적 사고, 객관성에 근거한 '진리'와 인식론적 근본주의에 대한 회의, 권력과 지식생산과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 경험의 투명성이나 진정성에 대한 회의 등 포스트모더니즘과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은 지식생산의 주요한 전제들을 공유하고 있다(이나영, 2006: 69). 특히 후기구조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억압적인 권력관계를 드러내고 변화시키는 방법으로서 비판적인 해체에 관심을 가지고, 특권화된 지식과 진실로 인해 사회적 위계관계가 재생산되는 방식에 저항한다. 이들은 주변화된 사람들에게 단순히 '목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타자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용된 "거대이야기"를 해체하기 위해 성찰적이고 정치적인 방식으로 "타자의 목소리"를 사용한다(Hesse-Biber, et al., 2004: 18).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은 입장론이 여전히 "더 옳은" 관점이라는 인식론적 특권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근대의 계몽주의적인 기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지식-권력 관계, 진리와 객관성에 대한 후기구조주의 혹은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들의 질문은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오랫동안 제기해 온 '(대문자) 타자(Other)'가 구성되는 방식에 관한 문제의식과 조우한다.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주된 관심은 전지구적 맥락에서 타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속박하며 식민화하는 사회적, 정치적 힘으로부터 타자를 탈식민화(decolonize)하는 것이다. 이 '탈식민화'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들이 제기하는 억압적인 권력 관계를 폭로하고 변혁하고자 하는 '비판적 해체'와 만난다. 또한 탈식민주의가 제기하는 재현의 주체, 이분법적 중심/주변, 주체/타자의 설정, 기호의 가치중립성에 대한 문제의식과 지식생산에서의 주체와 객체의 분리에 대한 비판은 포스트모던 이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맞닿는다(이나영, 2006: 70).

페미니스트 입장론을 발전시킨 포스트모던,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인식론적 틀은 타자를 단순히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타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차원을 넘어서 '타자화(otherization)' 과정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무엇보다 억압적 권력-지식 관계의 변혁을 추구하고 종속된 집단에 임파워먼트를 목표로 하는 대항적 정치학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다 나은 세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해방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복지 지식생산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페미니스트 인식론의 한국적 맥락에서의 수용은 검토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한국사회복지(학)의 연구동향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쟁점별로 페미니스트 인식론의 함의를 짚어보고자 한다.

### 3. 사회복지 연구동향 분석

현재의 사회복지연구의 주요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2009년 7월 현재까지 발간된 『한국사회복지학』 제40권부터 제62권까지 총 22권에 게재된 총 487편의 논문을 조사설계가 없는 연구, 양적 조사 설계를 포함한 연구, 질적 조사 설계를 포함한 연구, 양적·질적 혼합조사 설계를 포함한 연구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아래의 <표 1> 참조). 강철희·김미옥(2003)은 비경험적 연구, 경험적 연구(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혼합연구), 기타 연구로 구분하여 사회복지 연구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참조하면서 조사설계를 중심으로 분류기준을 삼고자 하였다.

<표 1> 조사설계 분류를 위한 내용분석들

구분	분류 내용	비고
분류 1	조사설계의 유무	조사설계 유/무
분류 2	조사설계의 유형	양적 조사설계/질적 조사설계/혼합적 조사설계
분류 3	양적 조사설계의 유형	설문지(서베이)조사/실험설계/패널조사/2차 자료분석
분류 4	질적 연구의 전통	근거이론/현상학/문화기술지/생애사연구/담론연구/사례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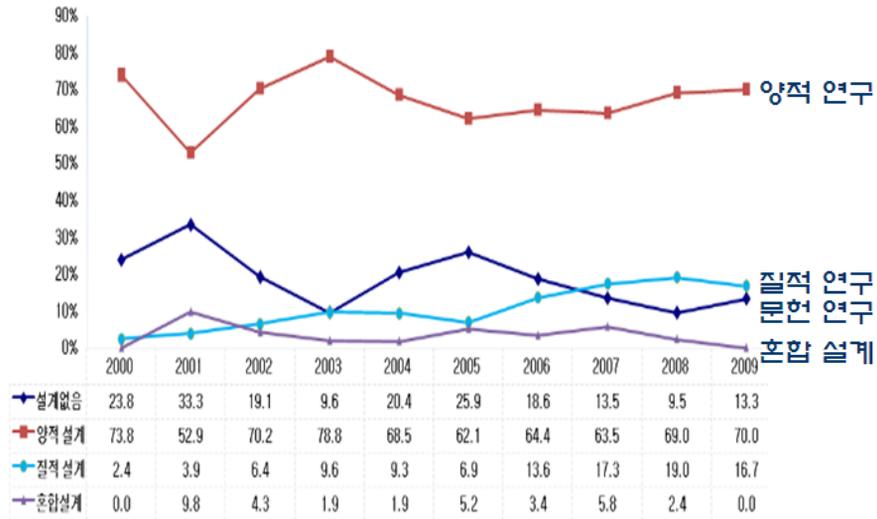
#### 1) 양적 연구의 지배 : 방법의 신성화(sacalization of method)

분석 결과, 사회복지 연구에서 가장 두드러진 경향은 양적 연구가 다른 연구설계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양적 조사설계를 포함하는 연구가 평균 70%의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홍경준, 1998; 2002; 강철희·김미옥, 2003), 양적 연구의 강세는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학) 연구의 지배적인 현상이다. 『한국사회복지학』이 창간된 1979년 이후 1987년까지는 조사설계를 포함하지 않는 이론적인 문헌연구가 가장 우세한 연구방법이었으나(강철희·김미옥, 2003: 58), 비경험적인 연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에는 질적 연구보다도 더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주의에 기반한 양적 연구가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전체 논문에서 7할 이상의 비율을 유지해오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복지 연구에서의 ‘방법의 (신)성화 현상’<sup>3)</sup>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특정한 패러다임이 주류적 위치를 차지하여 ‘타당한 지식’의 형태로서 광범위하게 수용되면, 패러다임

3) 김웅진(1994)은 규범적이고 자동적인 특정 방법론의 선택을 ‘방법론의 성화(sacalization)’로 정의한 바 있다. 본 연구자들은 사회복지 연구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경향이 방법론 차원에서만 아니라 방법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성화라고 보기 때문에 ‘방법의 (신)성화(sacalization(sanctification) of method)’로 재명명하고자 한다.

의 변화가 없는 한,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특정한 연구방법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습성화된다. ‘방법의 성화’는 이처럼 특정한 연구방법이 관습화되고 규범화되는 현상을 말하며, 이에 대한 학문공동체의 합의와 신뢰는 아주 강력하다. 학문공동체 내부의 지배적 경향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다른 방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인가받고 허가된 방법적 레퍼토리에 따라 선택과 재선택을 반복하게 하는 것이다(김웅진, 1994: 168).



〈그림 1〉 2000년~2009년 6월 『한국사회복지학』 게재논문에대한 조사 설계 유형별 분석

홍경준(1998, 2002)은 양적 연구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그는 연구자들이 연구주제나 이론적 근거에 의해 연구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익숙함이나 시대적 유행에 편승하여 연구방법을 택하게 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고(홍경준, 1998: 43), 양적 연구방법이 “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의 원리”<sup>4)</sup>에 따라 일반화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홍경준, 2002: 29). 학계에서 방법론과 인식론에 관한 논의가 부재한 경우 이러한 성화현상을 제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 방법의 성화가 가져오는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동일한 연구방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방법이 이론을 규제하는 현상, 즉 이론이 방법에 의해서 제한되고 고착되는 “지식의 화석화”를 야기하는데 있다(김웅진, 1994: 173). 특정한 방법에 얽매인 특정한 지식만을 반복적으로 산출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 지식이 측정과 양화를 중시하는 양적 방법에 의해서 전적으로 포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배적인 방법으로 사용된다면, 특정한 방법에 의해 포착가능한 대상과 범위 안에서만 지식이 (재)생산될 우려가 있다.

4) 홍경준(2002: 29)에 의하면, ‘수익체증의 원리’란 양적 연구방법이 준거가 되면서 연구자의 행위가 표준화되고 행위의 표준화는 거래비용 감소와 수익의 발생을 가져오는데, 이러한 수익은 더 많은 연구자들이 양적 방법을 준거로 따를수록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준거를 따르도록 강력하게 유인하는 원리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0년에서 2009년 6월까지 『한국사회복지학』에 게재된 논문 중 프로그램 효과성을 실험설계를 통해 입증한 연구는 37편으로 질적 연구의 4편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 실험설계로서 내적·외적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며, 효과를 측정하는 척도의 문제와 윤리적인 위험이 항시 내포되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실험설계가 서비스의 효과를 분석하는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규범화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자연과학의 방법을 차용한 실험설계를 선택함으로써, 수치화할 수 없는 의미와 요소들로 가득 찬 삶과 실천은 무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평균 점수의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에 대한 기각 선언이 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핵심적 수단이 된 것은 아닌지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 문제는 방법이 이론을 규제하듯이 이러한 실천의 평가방식이 실천의 형식과 내용을 구속한다는 데 있다.

서구에서는 효과성에 대한 실험의 결과들이 일치되지 않고 산개되면서 실험설계 자체에 대해 방법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지 실천의 효과가 그러한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는 차원의 것인지,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더 적합한지에 관한 방법론적 논쟁과 사회복지지식 자체에 대한 인식론적 논의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의 사례를 소개하거나 선구자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몇몇 연구가 있지만(문성호, 1997; 황성철, 1997; 홍경준, 2002; 김기덕, 2003; 고미영, 2003; 홍선미, 2004), 여전히 '주류' 학계나 실천현장에서 방법론과 인식론에 관한 본격적인 논쟁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방법의 성화 현상이 뚜렷해지면 분과학문의 규범과 전통에서 벗어나는 행동, 즉 대안적인 지식생산양식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는 소위, '일탈'로 간주된다. 학문공동체에서 대대로 전수되어 오는 안정된 기득권과 유산을 포기하는 "결연한 일탈(홍경준, 2002: 29)"이 시도되지 않는 한, 개별 연구자가 그러한 관성에서 빠져나오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 2) 질적 연구의 증가 : 진정 결연한 일탈인가?

양적 연구의 지배적인 우세 속에서도 질적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최근 사회복지 연구 동향의 또 다른 특징이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사회복지학』에 발표된 질적 연구는 487편 중 50편으로 전체 논문의 1/10인 10.3%에 불과하지만, 2006년 이후 매년 꾸준히 8, 9편이 발표되고 있고 논문집 2권만 포함된 2009년에 이미 5편인 것 등을 감안하면, 중요한 변화임에 분명하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질적 연구의 학문적 조건과 토대가 빠르게 성장하고 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것을 고려할 때, 질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질적 연구의 약진은 학문의 세계적 경향이기도 하다. Giligun과 Abrams(2002: 47)에 의하면, Social Work Abstract Database를 통한 검색 결과, 미국의 사회복지 관련 학술지에서 1979년~1989년까지 10년 동안 제목이나 요약문에 "질적(qualitative)"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논문이 109편, "서베이(survey)"를 포함하는 논문이 755편이었으나, 1999~2000년에는 각각 504편, 1,059편으로 질적 연구가 5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양적 조사연구의 절반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에서 질적 연구가 보다 보편화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그러나 과연 실증주의적 양적 연구에 대한 '일탈'이자 대안으로서 등장했던 질적 연구가 과연 '결연한'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의 탐구 패러다임을 분석한 김인숙(2007: 282-284)은, 현재의 질적 연구들은 구성주의적 인식론적 입장보다는 인식의 주체와 무관하게 '거기 그곳'에 존재하는 현상의 본질적 의미를 발굴하고자 하는 실재론적 입장에 더 근거해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 연구자들의 분석 결과, 2000~2009년 현재까지 『한국사회복지학』에 게재된 질적 연구논문의 양은 총 50편이었다. 이들을 특정한 질적 연구 전통별로 살펴보면, 지속적 비교방법을 포함한 근거이론이 18편으로 가장 많았고, 현상학적 연구가 10편, 생애사 연구가 5편, 문화기술지 연구가 3편, 대화와 담론연구가 3편이었으며, 사례연구가 8편,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연구가 3편이었다. 이로써 근거이론과 현상학적 연구가 28편으로 56%를 차지하면서 질적 연구를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실천에서 자주 사용되어왔던 사례연구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질적 연구는 불과 몇 가지의 한정된 방식으로만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비판적이고 구성적인 인식론을 보여주는 연구는 극히 드물었다.

특정한 연구전통이 선호되고 있다는 사실은 양적 연구에서처럼 질적 연구에서도 특정한 방법이 일종의 지정된 레퍼토리처럼 반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한 레퍼토리가 하나의 스타일로 고착화되는 경향은 방법의 성화현상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인숙(2007)은 근거이론을 비판하고 있는데, 본 연구자들은 근거이론뿐만 아니라 현상학적 연구도 절차주의의 궤도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현상학적 논문 10편 중 5편이 Colazzi 방식으로 분석되고 있었으며, 주요 과정과 절차 구성, 글쓰기 방식이 거의 동일한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질적 연구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방식도 지극히 형식화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다수의 질적 연구들이 공통된 점검표에 의해 작성된 것처럼 삼각측정, 동료자 검토, 연구자의 전문적 자격, 연구참여자의 간단한 추후 확인 등을 일종의 기준을 참조하듯이 동일한 문장으로 반복하고 있었다.<sup>5)</sup> 질적 연구의 중요한 쟁점인 연구의 윤리적 이슈도 구두 동의나 동의서를 받았다는 한줄 정도의 서술 수준을 넘어어서지 못했다.<sup>6)</sup> 이러한 현실들에 대해 김미옥(2007)은 "엄격성"의 이슈로 문제제기하면서, 질적 연구의 질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몇 가지의 한정된 척도를 단순 참조하는 수준으로 격하되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의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와의 협동적 노력과 평등하고 상호호혜적인 관계는 연구과정과 연구결과 모두를 신뢰할 수 있게 하며 생산된 지식을 타당하고 의미있는 것으로 정당화하는 중요한 기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와 성찰은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연구자 자신의 위치와 배경, 인성과 가치가 연구문제 형성과 연구결과를 분석하는데 미치는 영향력에

5) 질적 연구의 타당도 확보 방안을 살펴본 결과, 질적 연구 50편에서 22편(44%)이 자료의 삼각측정을, 32편(64%)이 동료연구자의 검토를, 15편(30%)이 민감성을 위한 연구자 준비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설명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했다"고 간략히 언급했으며, 연구민감성 준비도 주로 연구자가 관련분야의 전문가라는 점만을 강조하였다.

6) 윤리적 이슈의 고려를 살펴본 결과, 전체 질적 연구 50편에서 32편(64%)이 연구참여자의 구두동의 혹은 간단한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았다고 언급했고, 16편(32%)이 연구참여자에게 축어록을 확인하도록 했다고 간략하게 보고하였다.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편견'으로 간주하면서 연구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하고자 하는 경향마저 보인다.

한편 사회복지 질적 연구의 상당수는 개인의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의 의미규명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질적 연구들이 개인의 삶을 들여다 볼 뿐, '개인'이라는 미시적인 조사단위와 분석단위에 함몰되어 개인의 삶이라는 창을 통해 사회적 세계를 조망하고자 하는 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연구참여자의 경험과 삶이 사회구조적인 맥락들로부터 분리된 상태로 '투명하고 순수하게' 설정되고 있는 것이다. 질적 연구의 장점은 경험이 위치하고 있는 특정한 시공간의 복합적인 맥락에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삶으로 두텁게 서술되고(thick description) 분석되는 측면이다. 그러나 오직 '개인'만이 존재하는 듯한 연구경향은, 주관주의와 상대주의에 지나치게 의존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으며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기존의 질적연구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질적 연구의 문제점이나 한계들을 방법상에서만 비판하게 되면 '숲을 보지 못하는' 지엽적인 것이 될 위험이 있다. 삶의 주체와 연구 대상,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질적 연구과정과 이로 인해 생산되는 지식에 관한 인식론적 논의를 검토하지 않는다면, 질적 연구를 통해 얻게 되는 지식과 앎은 단순하고 피상적인 수준에 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3) 여성에 관한 연구 : 양적인 증가와 인식론적 한계

방법상의 보완을 통해서 양적 연구로의 편향을 교정하거나, 질적 연구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페미니스트 인식론'은 대안적 인식론으로서 어떠한 유효성을 지니는가? 방법에 대한 비판의 결과는 방법의 보완으로 종종 귀결되지만, 인식론이 아닌 방법의 보완만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는 한정적이다. 무엇보다 '(사회)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숨겨져 있는 중산층, 이성애, 남성중심성이라는 전제들의 이동 및 해체는 불가능한 전망이 된다. 그렇다면 한국사회복지(학)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 연구는 기존 사회복지 연구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안적 인식론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이 장에서는 소위 '여성'에 관한 사회복지 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페미니스트 인식론이 한국사회복지(학)에 제시하는 문제의식과 함의를 보다 구체화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사회복지학에 등장하고 있는 소위 '여성에 대한 연구'가 단순히 실증주의적 과학의 전통을 비판하는 차원을 넘어 인식론, 방법론, 연구 방법 및 실천 윤리의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를 재고하고 재구성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중층적이며 복합적인 분석작업을 요구한다.<sup>7)</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연구'에 대한 본격적인 페미니스트 분석 혹은 평가는 향후 연구과제로 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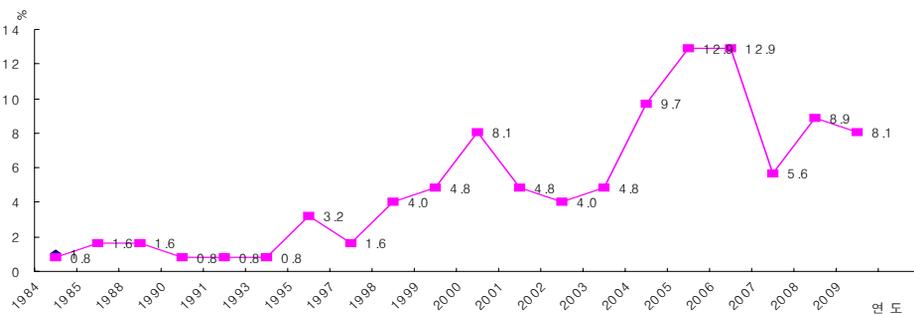
7) Reinharz(1992)는 명백히 여성에 의한(by women), 여성에 대한(of women), 그리고 여성을 위한(for women) 연구가 페미니스트 연구라고 정의하면서 페미니스트 연구는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 의식간 관계에 기반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다른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지니면서 페미니스트 연구만이 지닌 독창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론에 근거한 한국사회복지학의 여성연구에 대한 분석은 다른 층위의 작업을 요구하므로 추후 연구과제로 넘기하고자 한다.

기며, 이를 위한 시론적 작업의 일환으로 ‘여성’을 다루는 연구들의 주제와 여성을 재현하는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 수행되는 연구의 성격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다중적인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범주화하며, 분석할 수 있는 페미니스트 연구”(Reinharz, 1992: 4) 거의 부재한 한국의 사회복지(학)의 현실을 감안하여, 초창기 서구 페미니스트 경험주의자들이 시도했던 ‘여성’에 대해 다루는 연구주제와 여성 정체성을 첨가하는’ 전략을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다.

분석을 위해 『한국사회복지학』에 게재된 논문들 중 ‘여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논문들을 조사하였다. 한국사회복지학회의 홈페이지의 논문검색에서 “여성, 아내, 배우자, 어머니(모), 편모(한 부모), 가족보호자, 가족수발자”로 검색된 학회지 게재논문들을 아래 4개 기준에 부합되는지 모두 확인하여 ‘여성’에 관한 연구’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기준은 첫째, 연구제목에 여성을 명시하고 있는 연구, 둘째, 제목에 여성이 아닌 젠더화된 역할로 명시되었지만 연구대상이 전부 여성이거나 여성이 60%를 넘는 경우, 셋째, 여성에 관한 정책과 제도, 조직 및 실천에 관한 연구, 마지막으로 남녀 모두가 포함된 연구로서 성별차이와 관련된 연구이다. 이 과정을 거쳐 선정된 논문은 1984년~2009년 6월까지 발표된 총 124편인데 먼저 양적 증감 추이를 살펴본 후,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와 ‘여성’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체성들을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sup>8)</sup>

**(1) 여성 연구의 주제 분석 : 페미니스트 경험론의 시도와 한계**

아래 <그림 2>에서 보듯이 지난 25년간 ‘여성’에 대한 연구는 연도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써 일단 한국사회복지학에도 ‘여성’에 관한 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림 2> 1984~2009년 『한국사회복지학』 중 ‘여성’에 관한 연구의 증감 추이

여성’에 관한 연구의 성격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주제들을 분석한 결과, “자녀양육과 가

8) 대부분의 논문들에서 여성들에 대한 기술을 위해 사용된 사회적 정체성과 논문의 핵심 주제가 모두 일치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여성장애인의 양육에 관한 논문의 경우, 여성과 장애인, 양육자, 3개의 정체성을 사용한 것으로 코딩된다. 복수의 정체성들과 주제들을 모두 코딩하였기 때문에 논문의 수보다 더 많은 정체성과 주제가 도출되었다.

족돌봄(27편, 18.4%)”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빈곤(21편, 14.3%)”, “양성평등(19편, 12.9%)”, “트라우마 관련(15편, 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다시 말해 여성에 관한 사회복지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는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을 수발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겪는 어려움과 경제적인 빈곤, 일과 가사를 양립하는 것에서의 문제,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의한 후유증과 이에 대한 적응의 문제였다. 이는 페미니스트 경험주의가 기존의 실증주의적 전제에 대한 도전하지 않고 단지 여성을 ‘부가’하는 세 가지 방식 즉, 1) 공적 영역에 대한 여성의 ‘특별한’ 기여에 대한 검토, 2) 가치절하된 여성의 성과에 대한 재평가, 3) 여성을 피해자로서 연구하는 전형들(Harding, 1987: 5)을 보여주는데, 특히 피해자로서 여성에 대한 연구가 한국에서는 지배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1984~2009년 『한국사회복지학』 중 ‘여성에 관한 연구’의 주제 분석

여성의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	양적	질적	문헌	소계	소계(%)
빈곤	15	1	5	21	14.3
트라우마 관련(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	11	3	1	15	10.2
자녀양육과 가족돌봄	23	3	1	27	18.4
사회적응	6	4	0	10	6.8
일탈로부터의 재활	3	2	0	5	3.4
질병으로부터의 회복	2	2	0	4	2.7
양성평등(가사노동, 일가정 양립 등)	14	0	5	19	12.9
성별에 따른 인식차이	9	0	0	9	6.1
노동과 임금	7	0	2	9	6.1
결혼/이혼/재혼	6	2	1	9	6.1
여성복지정책과 여성복지실천 관련	10	0	9	19	12.9
계	106	17	24	143	100.0

위의 〈표 2〉에서도 보듯이, 상당수의 질적 연구들이 여성들의 삶에 주목하고 여성에 대한 범죄나 빈곤, 폭력과 학대 등의 문제를 검토하지만, 주로 여성들이 가진 어려움과 결핍 자체에 집중하고 있고, 대응책 또한 개별적 트라우마의 극복이나 사회적응의 문제, 일탈로부터의 재활에 맞추어져 있다. 이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문제의 원인이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고 비난하게 하는 결과를 낳으며, 이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낙인을 재생산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로서 여성’에 관한 연구들은 ‘결핍된 혹은 의존적인 존재로 주체적인 사회적 행위자일 수 없는 여성’이라는 가부장제의 전형을 재생산하는데, 이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회구조적인 맥락에 대해 간과했던 서구 페미니스트 경험주의의 시도와 한계를 동시에 확인하게 한다.

또 다른 주목할 점은 “양성평등”이라는 주제가 19편으로 3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2〉에서 나타난 2000년대 이후 ‘여성연구’의 급격한 증가추이와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일/가정 양립’이라는 주제가 사회적인 관심을 끌고 있고,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요청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민주정권 이후 급격히 부상한 정부 주도의 여성정책 아젠다가 사회복지영역에서 주요한 연구주제로 안착된 것으로 보인다. 가사노동의 분담이나 경력의 단절 없이 어떻게 여성이 양육과 직장을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에 관한 주제는 여성을 일방적으로 피해자화하는 연구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 역시 배타적으로 분리된 공적/사적 영역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여성의 사회적 위치, 성역할을 규정하는 사회구조, 불평등의 원인으로서 성별/젠더 체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진다.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 연구동향은 '차별받는 여성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긍정적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지식 생산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여성을 표본뿐만 아니라 측정내용과 분석틀 등에 '부가'함으로써 그간의 '편향성'을 다소나마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인식론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실증주의적 양적 연구가 지배적으로 우세한 사회복지 학계에서 다수의 주류 학자들을 설득하는데 잠정적이거나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자유주의 전통에 기반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초점을 두는 연구는, '중산층' '남성-주체' '이성애중심주의'에 기반한 사회구조에 여성을 단순히 끼워넣기 함으로써 기존의 권력체계에 편승할 우려가 있다. 이로써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재)생산하는 사회구조와 권력의 위계관계는 근본적으로 질문되지 않은 채 남게 된다.

## (2) 여성을 설명하는 정체성 분석 : 정형화된 성역할의 재생산

그렇다면, 여성에 관한 사회복지연구에서 '여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가? 여성에 관한 연구에서 '여성'을 설명하는 사회적 정체성들을 범주화해서 보면 아래의 <표 3>와 같다.

<표 3>에서 보듯이, 독립된 존재로서 '여성' 정체성은 39편(29.9%)에 불과한 반면에, 가족의 영역 안에서 '일차적 양육자로서의 어머니', '배우자로서 아내', '노인과 환자를 보살피는 수발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로서의 정체성은 이보다 두 배가 많은 87편(44.4%)으로 나타났다. 총 50편(25.5%)의 논문에서 여성은 다양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로서 등장하고 있지만, 주로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피해자인 '매맞는 아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과 분리된 '여성'을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연구는 소수였는데, 예를 들어 노동하는 존재인 '근로자'로 표상되고 있는 논문은 20편(10.2%)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다수의 사회복지연구가 여성을 아동의 일차적인 양육자로서, 클라이언트로서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다는 서구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sup>9)</sup>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구의 연구 경향과 차이점이 발견된다. 여성에 관한 정체성을 '가족'과 '클라이언트'의 하위범주로 묶어본다면, 가족 범주(44%)가 클라이언트 범주(25%)보다 더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클라이언트 범주(45.4%)가 가족 범주(30.5%)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던 서구의 경향(Barretti, 2001)과 상반되는 것이다. 물론 세부적인 정체성으로 분석한다면, 두 연구 모두 '어머니'로서 여성 정체성이 17.9%, 18.9%로 가장 높았다. 서구와 한국 양쪽의 사회복지연구에서 여성은 '어머니'의 전형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한국사회복지학>에서는 '어머니'

9) Abramovitz(1978), Quam과 Austin (1984), Deanow(1996) 등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 서구 사회복지 연구에서 여성은 아동의 일차적인 양육자로서, 그리고 클라이언트로서 가장 많이 재현되고 있다고 한다(Barretti, 2001: 270에서 재인용).

에 이어 '아내'의 정체성이 두 번째(16.3%)로 높고, '환자'의 정체성이 가장 낮은 1.5%로 나타나고 있지만, 서구 연구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환자'로서의 정체성이 11.9%로 2번째로 높고 아내로 대변되는 정체성은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서구에서는 정신적이고 의료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나 약물남용자, 복지수혜자 등으로 여성을 묘사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머니, 아내, 양육자, 돌봄 제공자 등, '가족 안의 부차적 존재'로 설명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 1984년~2009년 『한국사회복지학』 게재논문 중 '여성' 연구에서 나타난 '여성' 정체성

(단위: n)

여성을 설명하는 사회적 정체성들	양적	질적	문헌	소계	소계%
여성	20	6	13	39	19.9
가족	60	16	11	87	44.4
아내, 배우자,	22	7	3	32	16.3
양육자(모)	25	7	5	37	18.9
가족수혜자(노인, 환자, 장애인)	8	1	2	11	5.6
가구주	5	1	1	7	3.6
클라이언트 계층	35	12	3	50	25.5
트라우마 생존자(피해자)	12	3	2	17	8.7
장애인	5	0	0	5	2.6
노인	4	3	0	7	3.6
수급자	4	0	1	5	2.6
국제이주자	4	1	0	5	2.6
비행, 이탈자	4	4	0	8	4.1
환자	2	1	0	3	1.5
노동자	18	2	0	20	10.2
돌봄 노동자	4	1	0	5	2.6
노동자 / 근로자	14	1	0	15	7.7
	133	36	27	196	100.0

결론적으로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 연구는 우리 사회의 가족 중심주의와 가부장적 규범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성역할을 사회적 규범으로서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동시에 '여성'을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의존적이고 취약한 클라이언트 계층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 연구자들이 여성성과 남성성의 정형화된 특징들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기존의 사회적 위계들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doing gender'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doing gender'란 사회에서 기대되거나 요구되는 성별화된 역할(gendered role)을 수행하는 것으로 여성/남성의 구분에 기초한 사회적 구성을 인간의 삶을 조직하는 정상적이고 정당한 방식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적인 이유는 젠더가 사회·문화적 산물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이에 기반한 제도나 규범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며 합법화하는데 이바지한다는 점이다(West and Zimmerman, 1987: 146-147).

이러한 경향은 한국사회복지(학)에서의 여성에 관한 연구가 지양하고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한 의미

심장한 함의를 던진다. 단순히 연구방법의 다양성과 질적 연구의 확산만으로 양적 연구에 내재한 편향을 감소시키거나 연구 과정에 내재한 남성중심성의 해체를 담보할 수 없으며, 질적 연구에서 진행되는 여성의 타자화를 막아낼 수 없다. 젠더라는 억압적인 축이 생산되는 기제에 대한 분석과 이동이 없다면 '여성'뿐만 아니라 상대적 약자인 클라이언트가 지속적으로 타자화되는 경향은 해체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생물학적 여성'의 '현실'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사회질서를 (재)생산하고 규율화하는 억압적 권력의 축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젠더라는 축을 기점으로 계급, 인종, 섹슈얼리티, 민족 등 다양한 축들이 교차하면서 발생하는 차별과 위계관계(들)에 주목하고 이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구성되는 '여성 정체성들'을 분석하는 작업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기반 위에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조의 변화를 지향하는 연구야말로 향후 사회복지연구자들의 궁극적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사회복지 지식생산 방식에 관해 대안적 방향을 제시하는 페미니스트 인식론의 주요 요소들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 4. 페미니스트 인식론의 함의

### 1) 주체/대상의 관계 재고: 주체로서의 연구참여자, 타자로서의 연구자

실증주의는 연구자와 연구대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한다. 실증주의에서 연구대상은 자연과학에서 처럼 관찰되는 객체이며 실험의 처치효과를 담지하고 있는 실험대상일 뿐이다. 따라서 실증주의에 기반한 연구에서 연구자와 연구대상자간에는 위계적인 관계가 자연스럽게 구축되고, 이 둘은 연구과정 안에서 전혀 다른 국면에 놓이게 된다(Hesse-Biber, et al., 2004: 12). 연구자는 '모든 것을 아는' 전문가이며, 연구대상은 '탐구의 대상' 혹은 '설명되거나 기술되는 대상'으로 상정된다. 페미니스트 인식론은 연구자와 연구대상간의 절대적 거리를 상정하고 몰인격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실증주의의 논리가 연구참여자를 '통제'하고 '타자화하는' 것임을 비판하면서, 연구가 착취와 학대의 필연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는 권력관계를 통해 수행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실천가와 연구자의 전문성, 전문적인 지식이 갖는 권력의 효과에 대해서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찰함으로써,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간의 전통적인 위계관계를 해체하고 재구성할 것을 요구해 왔던 것이다.

Fine(1998: 131-135)은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와의 관계에 스며들어 있는 다양한 모순들을 덮으면서 소위 타자를 '위해서' 타자에 '관해' 이야기하는 권력을 행사해왔을 뿐만 아니라, '타자'를 식민화하는 담론을 재생산하는데 기여했다고 비판한다. 그는 연구자가 타자화되어 온 사람들에게 대해서 단순히 기술하는 것은 나와 타자와의 관계인 "하이픈(-)을 부인하는 것(p.135)"이라고 지적하면서, 타자가 아니라 타자화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연구자가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기반으로 연구참여자들과 함께 사회적 투쟁에 복무하기로 선택하고, 이들을 타자화하는 사회적 구

조를 맥락적으로 규명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를 '타자화'한다는 비판은 현재 사회복지 질적 연구가 직면하고 있는 뼈아픈 지적 중 하나이다. 연구자나 실천가는 공히 타자들의 목소리를 공적 결정이나 논쟁에 가져올 수 있는 전문적이며 문화적인 권위를 가지지만, '타자를 위해 말하는 권력'은 분명 문제적이고 불평등한 권력의 배열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Gilgum and Abrams, 2002: 42). 사회복지 질적 연구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는 '클라이언트'는 전통적인 시각에서 결핍된 욕구와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고 트라우마나 장애 등의 문제로 사회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집단이며, 빈곤이나 비행, 범죄 등 사회적으로 낙인찍히는 '일탈행위자'나 해악적인 경험을 가진 '피해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다른 학문분야에서의 연구보다 더 쉽게 타자화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학)에서는 전문가라는 연구자의 정체성이 당연시되고 또 강조되기 때문에 연구자가 가지는 권력과 연구참여자와의 불평등한 관계에 대한 성찰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나 페미니스트 인식론은 연구참여자로써 클라이언트는 연구과정에서 연구자와 함께 지식을 생산해내는 '지식의 주체'임을 강조한다. 이들의 삶과 삶에 대한 이야기는 연구의 출발점이 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지식의 원천인 것이다. "교사로서의 연구참여자, 학생으로서의 연구자"라는 말처럼(Archer, 2009: 154), 페미니스트 인식론은 이들을 연구대상자이거나 단순히 정보를 갖고 있는 인터뷰 대상자가 아니라 연구의 분석과정에서 쓰이는 핵심적 자료,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연구의 주체이며, 지식을 생산해내는 공동저자이자 공동작업자로 인식하도록 '연구자의 각성'을 요청한다.

무엇보다 페미니스트 인식론의 의의는 주체(연구자)와 타자(연구대상자)는 이분법적인 경계를 허물고, '우리들(연구자)'이 가진 특권에 대해 반역적 감각(traitorous perception) 활성화하여 '그들'에 합류하고 스스로를 '타자'로 호명하는 것, 그리하여 마침내 연구자가 '타자'가 되는 것(Harding, 1991: 293-295)이 연구과정의 윤리적 딜레마를 극복하는 출발점이라고 지적한다는 점이다. 주체로서 '나'와 대상자로서 타자에 대한 새로운 관계로서의 하이픈(-)에 대한 성찰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로 표상되는 사회복지실천에서도 의미있는 변화를 추동할 것이다.

## 2) '객관성'에 대한 재고와 '상황적' 지식의 함의

실증주의에서 알고자 하는 것은 관찰자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세계에 관한 법칙으로서의 지식이다. 실증주의에서는 자연세계와 사회세계의 관계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아르키메데스적 지점이 존재한다고 믿으며 이를 과학의 목표로 추구한다(Harding, 1991: 57). Harding(1991: 142-142)은 "강한 객관성"이라는 개념으로 실증주의 객관성에 도전한다. 전지적인 신의 관점에서 발견된 초역사적인 진실이 존재한다는 믿음은 다른 관점들과 이로부터 인지되고 경험된 다양한 현실들의 존재를 탈락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덜 객관적이다. 반면, 모든 지식이 사회적으로 위치지어지는 것이며 과학 또한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것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성찰할 때, 비로소 다양한 사실들과 실제들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Haraway(2004: 86-87)는 지식과 진리의 속성은 권력관계와 분리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이며 상황적으로 위치 지워진 것(socially situated knowledge)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무소' 혹은 '모든 곳'에서부터(view from no where or view from everywhere) 세상을 볼 수 있는 전능하고 무한한 시각(vision)은 환상일 뿐만 아니라 신을 흉내 내는 속임수라고 비판하고, 특정한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 개인 관찰자(연구자)의 세계관은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세계관도 부분성(partiality)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거대 이론과 법칙으로서의 일반화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는 구체적인 상황적 맥락들을 탈각시키면서 주체가 지닌 의지와 선택, 창의성과 임의성을 배제하고, 고유한 행위와 심성을 인간의 보편성에 환원시키며 하나의 사례로서의 자료적 가치에 불과한 것으로 격하시켜 버리지만(김웅진, 1994: 173), 상황적이고 국지적인 지식의 추구는 주체적인 행위자로서 연구참여자가 구성하는 작은 이야기들을 존중하고 정당화하며, 그동안 가시화되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았던 주변화된 지식들을 재조명한다. 따라서 국지적인 지식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것은 사회복지실천에서의 복잡성과 다양성, 파트너십을 인식하게 하는 관점 또한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Wendt and Boylan, 2009: 607).

'강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연구문제를 형성해가는 과정인 '발견의 맥락(context of discovery)'이 온전히 드러나야 한다. 발견의 맥락이란 연구자가 연구주제를 왜, 선택하고 연구질문을 어떻게 구체화했는지, 연구질문이 사회적 맥락 안에서 어떤 위치를 갖는지, 연구자의 모든 배경과 위치들이 연구질문의 성격과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성찰과 설명들이다(Brooks and Hesse-Biber, 2006: 13). 이는 연구기획의 모든 과정에서 연구자의 역사들과 위치들, 영향력들, 신념들, 도덕적 관념들 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연구자들의 모든 경험이 연구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경험이 연구 안에서 어떻게 재배치되고, 가치와 신념이 연구의 과정과 자료수집 그리고 분석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Wendt and Boylan, 2009: 601).

Harding(1991: 162)은 강한 객관성을 확보하는 기제를 '강한 성찰성'에서 찾았다. 연구를 뒷받침하는 특정 가치들에 대한 적극적인 성찰이 있을 때 참다운 이해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다. '보다 나은 이해'로 가는 경로로서의 성찰성에 대한 인식은, 현재 사회복지 지식생산 과정에 연루되어 있는 연구자 스스로에 대한 숙고와 성찰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동기와 동력을 제공한다고 본다. 발견의 맥락을 온전히 드러내면 연구질문의 초점과 관점이 다시 방향 지워지고 명확해지며, 질문의 성격이나 방식들도 변화한다. 다시 말해 연구의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Swignski, 2003: 175). 억압되고 주변화된 삶의 입장에서부터 발견의 맥락을 풀어놓는 것은 기존의 설명과 지식들에 숨었던 편견들을 직면하게 하므로 기존의 권력관계와 사회질서 안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많은 이슈들을 연구문제로 형성하게 할 것이다.

### 3) 비판적·해방적인 사회복지연구와 실천

젠더와 계급, 인종 등의 구분에 따라 권력이 위계적으로 조직되는 사회구조 속에서 가치중립적인

관점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증주의 인식론의 최대 과제인 주관성을 제거하고자 한 목표는 사실 결코 성취된 바 없다(Sprague and Kobrynowicz, 1999: 26).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의 우월성은 실증주의가 보증하는 '객관성'이나 '보편성'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가부장적 권력과 특권화된 위치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지식구축은 결코 가치중립적이지 않다(Brooks and Hesse-Biber, 2006: 7). 실제로 연구과정에서 사실과 가치를 분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치는 연구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이다(문성호, 1997: 152). 특히 사회복지 영역은 명백하게 가치지향적이며, 사회복지 지식은 그 사회가 지지하는 가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다(고미영, 2004: 38).

따라서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사회복지 지식은 '가치중립적'인 연구자를 통해 생산되어야 한다는 '공공연한' 선언은 앞서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처럼, 이미 특정한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는 현실을 외면하거나 이를 오도하는 것이다. 더구나 사회복지 지식은 사회의 가치와 규범의 단순한 반영을 넘어 이를 대변하고 재생산하고 확장하는 구조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적 각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객관적 실재와 가치중립에 대한 전제들은 사회복지 연구가 수행해야 하는 많은 비판적인 검토들을 애초부터 차단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인숙(2007: 292-293)은 사회복지 지식과 실천이 통제를 시도하는 행위로 전락하거나, 사회적 약자들을 낙인지우며 타자화하고 이를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Sprague and Kobrynowicz(1999: 37)의 지적처럼, 서구에서 많은 질적 연구들이 수행되었지만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가 사회적 변화를 촉구하는 지식을 생산하거나 사회적·정치적 운동에 기여하지 못했던 이유는 "질적 연구에 대한 과도한 신뢰가 초래한 가장 부정적인 결과" 때문이다. 이는 질적 연구의 탐구패러다임의 현실과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페미니스트 인식론은 연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명확한 비전과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제공한다. 지식의 목적은 목적 지향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주체의 임파워먼트에 있기 때문에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은 사회변화에 관한 이론 즉, 로드맵을 만들도록 요청한다. 모든 과학적 활동이 목적을 위해 지식을 생산하는 것으로 인식될 때, 연구자가 연구의 정치적 목적을 인지하는 것은 강점이며, 오히려 이러한 목적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중요한 약점으로 작동한다(Sprague and Kobrynowicz, 1999: 37).

페미니스트 인식론에 기반한 연구자들은 결코 '가치중립적인 위치'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여성을 포함한 주변화된 타자들의 경험들과 목소리들을 단순히 포함하는 차원을 넘어 지식구축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는다(Harding, 1991: 142). 따라서 페미니스트 인식론은 이론가와 실천가들로 하여금 여성, 유색인, 빈곤자, 노인, 성적 소수자, 장애인 등과 같이 억압받고 주변화된 집단의 일상적인 삶에서 제기된 문제설정을 가능하게 하며, 사회가 이러한 일상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구조화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한다(Swignonski, 1993 : 173).

## 5. 결론

사회복지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지식을 생산하고 있는가? 연구는 누구를 위한 연구이며 누가 무엇을 위해 수행하는 것인가? 연구는 통해 생산된 지식은 과연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한국사회복지(학) 지식생산 양식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했으며, 결론적으로 페미니스트 인식론이 실증주의적 양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고 질적 연구에 서조차 모호한 인식론적 쟁점들을 구체화한다고 보았다.

『한국사회복지학』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한 결과, 현재 사회복지연구의 두드러진 연구경향은 양적 연구의 지배적인 우세와 질적 연구의 증가로 확인되었다. 여성에 관한 연구가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문제점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에서 특정한 연구방법이 관습화되고 규범화되는 '성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여성에 관한 상당수의 연구가 여성=피해자를 강조하고 독립된 개인보다는 '가족 안의 여성'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성별불평등의 사회구조적인 원인에 대해 함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성역할을 재생산할 우려마저 낳고 있다. 무엇보다 타자화되는 과정이 아니라 '타자에 관한 연구'에 그침으로써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사회적 약자의 취약함을 강조하고 낙인을 재생산하여 재타자화한다는 혐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지점에서 페미니스트 인식론은 한국사회복지(학)의 지식생산 양식과 방향을 재고하게 한다.

페미니스트 인식론으로부터 출발하는 연구는 그동안 사회복지학계에서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영역인 인식론적 쟁점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촉구하면서, 실증주의의 주요 전제들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보내왔던 '관성'에서 벗어나 사회복지 지식생산의 대안적 양식을 모색하도록 촉구한다. 특히 지식의 주체/대상이라는 이분법적 관계에 문제제기하는 페미니스트들의 논의는 사회복지 지식의 구축과정에서 작용하는 권력관계와 지식 자체가 갖는 권력 효과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한다. 페미니스트 인식론이 강조하는 나(주체)-타자간 관계의 재구성, 이를 연결하는 '하이픈(-)'에 관한 새로운 성찰은 그동안 사회복지연구에서 무심하게 수행해왔던 '타자화'를 성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특권화된 위치를 상대화시킨다. 타자로서의 클라이언트에서 벗어나 주체로서 클라이언트를 호명하도록 요청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실천의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변화를 견인할 것이다.

무엇보다 '억압받은 사람들의 삶'과 '그들이 있는 곳'에서 사회복지연구와 실천의 출발점을 재고하게 한다는 점에서 페미니스트 인식론은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이는 지배계급의 가치와 태도를 규범화하며 정상화해왔던 보수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게 하고, 억압과 차별을 구조화하는 사회적 조건의 변화를 지향하는 사회복지연구의 본래적 출발점이자 해방적 전망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개인적인 것과 사회구조적인 것 간의 상호연관성을 인지하고 정치적 투쟁과 연대를 통해 사회변혁을 지향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페미니스트들의 유명한 슬로건은, 페미니스트 인식론이 사회복지연구에 던지는 전망의 요약본이라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자들은 페미니스트 인식론이 사회복지의 비정치성을 가장한 정치성을 읽어내게 하는 렌즈의 역할을 하면서,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것을 정치적이고 거시적인 것과 서로 이어주고 소통하게 하는 방식을 제시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페미니스트 인식론이 결합된 '대안적인' 사회복지 지식생산양식은 '우리'의 '삶'과 '실천' 방식을 재구성하고 발전시켜 이론과 실천 모든 면에서 '사회복지'의 지평을 확대시킬 것이다. 이로써 우리 삶과 실천현장에 자리잡고 있는 이분법들 즉, 다수/소수, 정상/비정상, 나/타자, 전문가(실천가)/클라이언트, 연구자/실천가, 개인/사회 등을 가르는 단절의 경계가 인지되고 이를 넘어서도록 서로 촉구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강철희·김미옥. 2003.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방법론에 대한 분석과 고찰 : 질적 연구방법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논의". 『한국사회복지학』 55: 51-81.
- 고미영. 2003. "사회복지 지식의 정치성과 예술성". 『상황과 복지』 15: 131-164.
- 김기덕. 2003. "사회복지 지식의 인식론적 기초". 『상황과 복지』 15: 13-43.
- 김미옥. 2007. "한국 사회복지학에서의 질적 연구 경험에 관한 연구 : 엄격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9: 163-189.
- 김연옥. 1998. "우리나라 사회복지학 연구경향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복지학>에 실린 경험분석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35: 85-105.
- 김웅진. 1994. "방법론의 이론 종속성과 이론의 방법론 종속성: 연구방법론의 성화와 지식의 화석화". 『한국정치학회보』 27(2): 165-179.
- 김인숙. 2007.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 : 동향과 의미". 『한국사회복지학』 59: 275-300.
- 문성호. 1997. "사회사업실천 연구방법에 관한 논쟁: 통합적 접근". 『한국사회복지학』 33: 144-161.
- 이나영. 2006. "초/국적 페미니즘: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 정치학의 확장". 『경제와 사회』 70: 63-88.
- 이나영. 2009. "초국적 페미니즘 : 지구화시대 연대의 진보적 확장". 조희연·지주형 편. 『지구화시대의 국가와 탈국가』. 서울: 한울. pp. 537-565.
- 조주현. 2000. 『여성정체성의 정치학』.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최 균. 1995. "한국사회복지학 연구의 분석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1-19.
- 홍경준. 1998. "한국사회복지학 연구방법의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31-53.
- 홍경준. 2002. "한국 사회복지학계 연구방법론의 동향". 『상황과 복지』 13: 13-32.
- 홍선미. 2004. "사회복지실천의 지식기반과 학문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4): 195-214.
- 황성철. 1998. "사회사업실천의 효과성에 관한 논쟁과 미국사회사업의 발전 : 임상적 실천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34: 215-245.
- Archer, J. 2009. "Intersecting Feminist Theory and Ethnography in the Context of Social Work Research." *Qualitative Social Work* 18(2): 143-160.
- Barretti, M. 2001. "Social Work, Women, and Feminism : A Review of Social Work Journals : 1988-1997." *Affilia* 16(3): 266-294.

- Brooks, A., and S. N. Hesse-Biber. 2006. "An Invitation to Feminist Research." pp. 1-26. in *Feminist Research Practice : A Primer*, edited by S. N. Hesse-Biber and P. L. Leavy. Thousand Oaks: Sage.
- Campbell R., and S. M. Wasco. 2000. "Feminist Approaches to Social Science : Epistemological and Methodological Tene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8(6): 773-790.
- Collins, H. P. 2003. "The Politics of Black Feminist Thought." pp. 318-337. in *Feminist Theory : Local and Global Perspectives*, edited by Kim, Seung-kyung and C. MaCann, New York: Routledge.
- Collins, H. P. 2004. "Learning from the Outsider Within : The Sociological Significance of Black Standpoint Thought." pp. 103-126. in *The Feminist standpoint Theory Reader : Intellectual and Political Controversies*, edited by S. Harding. New York: Routledge.
- Fine, M. 1998. "Working the Hyphens : Reinventing Self and Other in Qualitative Research." pp. 130-155. in *The Landscape of Qualitative Research : Theories and Issues*, edited by N. K. Denzin and Y. S. Lincoln. Thousand Oaks: Sage.
- Gilgun, F. J., and L. S. Abrams. 2002. "The Nature and Usefulness of Qualitative Social Work Research : Some Thoughts and an Invitation to Dialogue." *Qualitative Social Work* 1(1): 39-54.
- Haraway, D. 2004. "Situated Knowledges : The Science Question in Feminism and the Privilege of Partial Perspective." pp. 81-102. in *The Feminist Standpoint Theory Reader : Intellectual and Political Controversies*, edited by S. Harding. New York: Routledge.
- Harding, S. 1987. "Introduction : Is There a Feminist Method?" pp. 1-15. in *Feminism and Methodology : Social Science Issues*, edited by S. Harding. Blooming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 Harding, S. 1991. *Whose Science? Whose Knowledge? : Thinking from Women's Lives*.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Harding, S. 2004. "Rethinking Standpoint Epistemology : What is "Strong Objectivity?" pp. 127-140. in *The Feminist standpoint Theory Reader : Intellectual and Political Controversies*, edited by S. Harding. New York: Routledge.
- Hartsock, N. C. M. 2003. "The Feminist Standpoint : Toward A Specifically Feminist Historical Materialism." pp. 292-307. in *Feminist Theory : Local and Global Perspectives*, edited by Kim, Seung-kyung and C. MaCann. New York: Routledge.
- Hesse-Biber, S. N., P. L. Leavy, and M. L. Yaiser. 2004. "Feminist Approaches to Research as a Process : Reconceptualizing Epistemology, Methodology and Method." pp. 3-26. in *Feminist Perspectives on Social Research*, edited by N. S. Hesse-Biber and M. L. Yais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rane, J. 1991. "Feminist Thinking as an Aid to Teaching Social Work Research." *Affilia* 6(4): 53-70.
- Leavy, P. L. 2006. "Feminist Postmodernism and Poststructuralism." pp. 83-110. in *Feminist Research Practice : A Primer*, edited by S. N. Hesse-Biber and P. L. Leavy. Thousand Oaks: Sage.
- Reinharz, S. 1992. *Feminist Methods in Social Researc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prague, J. and D. Kobrynowicz. 2004. "A Feminist Epistemology." pp. 78-98. in *Feminist Perspectives on Social Research*, edited by N. S. Hesse-Biber and M. L. Yais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wigonski, M. E. 1993. "Feminist Standpoint Theory and Questions of Social Work Research." *Affilia* 8(2): 171-183.
- Wendt, S. and J. Boylan. 2009. "Feminist Social Work Research Engaging with Poststructural Ideas." *International Social Work* 51(5): 599-609.
- West, C. and D. H. Zimmerman. 1987. "Doing Gender." *Gender and Society* 1(2): 125-151.

## The Implications of Feminist Epistemology for Knowledge Production in Social Welfare

Sung, Jung-Suk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Chung-Ang University)

Lee, Na-Young

(Department of Sociology at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analyze the way of knowledge production in social welfare and to graft feminist epistemology to the discipline of social welfare. To put it more concretely, as analyzing the epistemolog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appeared in the articles i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s of feminist epistemology and its implications to research and practice in social welfare. From its onset, feminist research criticized the 'mainstream' ways of conceptualizing knowledge construction via research conducted upon a positivist epistemological position. Particularly, western feminists have problematized the androcentric bias embedded within the so-called 'social sciences' that we have taken for granted as 'scientific,' 'objective,' and 'neutral,' and attempted to redirect and reformulate the way of knowledge production with new concepts of 'strong objectivity,' 'partial/situated knowledge,' and 'strong reflection.' We believe that the implications of feminist epistemology to enable us to reflect the power relationship between subject and object, I and Other, and the researcher and the researched will contribute to recover the original vision of social welfare as critical theory and liberating practice in social work.

Key words : Knowledge production, Feminist epistemology, Critical Social Welfare, Methodology, Qualitative method

[논문 접수일: 10. 02. 01, 심사일: 10. 02. 18, 게재 확정일: 10. 03. 15]